

광주 초중고 계약직 '채용 비리' 수두룩

광주교육청 6년치 감사 실적 공개...법규 무시 마구잡이 선발 면접 공정성 없고 이사장 추천자에 가산점...당락 뒤바뀌어

광주지역 초·중·고교와 교육청 산하기관의 계약직 직원 채용이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규를 무시한 채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일부 채용 전형에서는 고득점자가 탈락하고 최하위 득점자가 선발되는가 하면, 채용공고나 심사 없이 마구 선발하는 경우마저 있었다. 채용과정에서 당락이 바뀌고, 법률에서 정한 절차도 생략된 채 진행된 채용에 대해 시교육청은 단순 경로나 주위에 그쳐 채용비리 근절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광주시교육청은 18일 '2013~2018년 광주 초중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광주 호남삼육고는 2010~2013년 4년 동안 기간제 교사 10명

을 선발하면서 채용공고, 전형위원회 구성, 심사 등의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임의로 뽑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 산하기관인 광주중앙도서관은 올해 행정실무사(초단시간근로자) 6명을 뽑으면서, 면접전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지원자 21명 전체를 면접했다. 그 결과 서류전형(만점 40점) 최하위자로 분류된 지원자 2명(13위 18점, 14위 17점)이 면접전형(만점 60점)에서 58.2점을 얻어 각각 5, 6위로 채용됐다. 서류전형에서 27점을 받은 상대적 고득점자 2명은 면접에서 각각 41.4점, 40.4점을 받고 탈락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면접문항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지 않았는데도 합격자 면접점수와 탈락자 면접점수 차이

가 크다. 면접 진행 방식 역시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경고조치했다.

금구초등학교는 지난 2011년 기간제 교사 채용과정에서 서류심사나 면접심사 없이 5명을 뽑은 사실이 드러나 주의조치 받았다. 문산초 역시 지난 2010년 기간제 교사 채용을 하면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생략하고 7명을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 측은 절차 미준수 지적에 "지원자가 각각 1명밖에 없었다. 공고를 거치면 수업 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사립학교인 동아여고는 기간제 교사 채용과정에서 '이사장 추천자'에게 가산점을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는 지난 2011~2012년 수학·미술 기간제 교사를 각각 1명씩 선발하면서 '이사장 추천 받은 지원자에게 서류심사에서 25점을 준다'는 근거 없는 내부 규정을 적용했다. 그 결과 이사장 추천 점수가 없었다더라면 탈락했을 지원자 2명이 모두 최고점수로 서류전형

을 통과했고, 2차 실기 면접에서도 최고점수를 얻어 최종합격자로 드러났다. 감사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확인됐는데도 시교육청은 업무 관련자 1명에게 경고조치하는 데 그쳤다.

금파공고는 지난 2014년 조리종사원 채용과정을 지적받았다. 결과적으로 1명을 새로 뽑으면서 서류접수자 11명 가운데 참석자 10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했다. 그런데 1순위자(355점)는 탈락시키고 2순위자(345점)를 뽑은 사실이 드러나 경고조치 받은 것이다.

충장중은 지난 2011년 전문상담 인턴교사 채용과정에서 1순위 자격증 소지자는 탈락시키고 5순위 자격증 소지자를 뽑은 사실이 드러나 주의조치 받았다. 비아중의 경우 지난 2013년 회계직원 채용을 하면서 공개전형을 하지 않고 임의로 직원을 채용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자신 무시한다며 격분 노래방 업주 살해 50대 검거

광주북부경찰은 18일 노래방에서 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박오(56)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새벽 2시25분께 광주시 운암동 모 노래방 주인 임모(여·59)씨를 흉기로 한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5범인 박씨는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임씨의 노래방 개업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씨가 빈방이 있는데도 없다고 나가라고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8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경포의 한 펜션에서 투숙한 학생 10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소방대원들이 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 등을 하고 있다.

강릉 펜션서 고3생 3명 사망·7명 중태...중독 사고 추정

내부 일산화탄소 정상의 8배 보일러 배관 분리 여부 조사

18일 강원 강릉시 경포의 한 펜션에서 수능시험을 끝낸 서울 대상 고3학년 남학생 10명 중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경찰 등이 수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2분께 강릉시 경포의 한 펜션에서 수능을 끝낸 남학생 10명이 단체 숙박 중 의식을

잃고 있는 것을 업주 등이 발견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 중 3명이 숨지고 7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119구급차량 등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학생들은 거품을 물고 구토 중인 채로 발견됐다고 소방 당국은 밝혔다.

학생들은 거실과 방 여러 곳에서 쓰러져 있는 채 발견됐다.

소방 관계자는 "사건 현장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155ppm으로 높게 측정됐다"며 "일반적인 정상 수치는 20ppm 수준"이라고 말했다.

소방 당국은 의식이 없는 7명을 강릉 아산병원과 고려병원, 동인병원 등에 분산 치료 중이다. 특히 부상자 중 위중한 2명은 고압산소치료가 가능한 원주 기독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하고 있다.

강릉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 브리핑을 통해 "자살도 아니고 타살도 아닌 사고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를 당한 학생들은 서울 은평구 대성고 3학년 남자 학생들로, 보호자 동의로 단체 숙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들이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해 여행을 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날 밝혔다.

펜션 인근 주민은 "점심 먹고 집 앞에 오니까 119등이 대거 출동해 있었다"며 "들것에 실려 나온 학생 상당수가 의식이 없었고, 입 주변에 거품 등을 물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이 주민은 "어제 학생들이 펜션으로 택시를 타고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4시께 펜션에 입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보일러 배관 분리 여부를 비롯해 목욕탕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차선 잘 안 보인다 했더니...

불법 하도급 업자 13명·부실 관리 공무원 등 14명 적발

차선도색 공사를 떠내 타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건설업자와 공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업자 A(36)씨 등 13명과 공무원 B(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남원시에서 발주한 차선도색 공사 21건을 수주해 2014년부터 최근까지 하청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B씨는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사용하는 건설 자재를 검수하지 않고 시공 과정도 감독하지 않고도, 정상적인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다.

업자들은 17억원 상당의 공사 21건을 떠내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공사금액의 30~40%(5억7000여만원)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이들은 애초에 차선 도색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불법 하도급을 줄 목적으로 남원시 입찰에 참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도급을 받은 업체들의 공사도 부실했다. 조사 결과 1.5~1.8mm야할 차선도막(표면의 표면에 칠한 도료의 층) 두께가 1mm 정도에 불과했다. 심야 시간이나 비가 내릴 때 운전자의 차량 운행에 도를 휘도(표면의 밝기)도 기준치 이하였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300만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음주호법' 시행 첫날이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을 공동발의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애초 검찰은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200만원으로 결정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가 벌금 액수를 법정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약식명령은 형의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재판부가 벌금 액수는 조정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 7~8k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서울중앙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이 의원 차를 붙잡았고, 운전자가 이 의원인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이 의원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앞서 민주평화당은 지난달 14일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해남 공사장서 타살 추정 시신

해남에서 타살로 의심되는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해남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3분께 해남군 산이면 인근 간척지수로 공사 현장에서 시신과 나이를 알 수 없는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포크레인 운전기사 A씨가 공사 현장

에서 작업을 하던 중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은 발견 당시 목에 끈이 감겨 있었으며, 1m 아래 땅속에 묻혀있었다. 얇은 긴 소매 상의와 바지 차림으로 발견된 시신은 부패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왜 다른 손님 먼저 태워" 택시기사 목살 잡고 행패

○...한밤 중 장시간 택시를 기다리던 50대가 자신을 지나쳐 다른손님을 먼저 태운 택시기사의 목살을 잡고 흔들었다가 경찰서행.

○...18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한 모(55)씨는 지난 17일 밤 9시 4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도로변에서 우

모(43)씨의 택시 조수석 문을 발로 차고 우씨의 목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것.

○...한씨는 경찰조사에서 "택시를 한참 기다렸는데 우씨가 나를 지나쳐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을 먼저 태워 화가 났다"며 선처를 호소.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이제 노안과 백내장을 동시에 해결하세요

신세계안과 카탈리스 노안·백내장 수술

- 기존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낭 절개를 수기로 진행
- 카탈리스 노안·백내장 수술은 3D OCT 통해 안구 상태 실시간 확인
- 안구 스캔 후 자동으로 3D 알고리즘을 통한 정밀 분석
- 3D 펄스레이저 레이저 시스템으로 정교한 수술 가능
- 3차원 입체절개 방식으로 개개인의 정확한 맞춤 난시교정 가능
- 개별 맞춤형 다초점 인공수정체 렌즈 삽입으로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 시력 가능
- 자동 안구보호 시스템으로 수정체낭 파열, 황체 손상 등 합병증 방지
- 레이저 최소절개 수술로 다음날부터 돋보기 없이 일상생활 가능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